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장로 선출을 위한 17일 제직회 31일 공동의회

안수집사 · 협동장로 · 제2권사회 회원을 후보로

우리 교회 당회는 제 5대 장로 10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노회에 청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장로 투표에서는 안수집사 43명, 협동장로 1명과 제 2권사회 95명이 모두 후보자의 범위에 속한다. 1995년 이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해 여성도도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70세 미만인 제 2권사회의 회원들도 후보의 범위에 속하게 된 것이다.

17일(주일) 찬양예배 후에 가지는 특별제직회에서는 후보자를 배수로 선출하고 당회가 이를 인준하게 된다. 선거위원회에서는 이날 투표를 위한 후보자의 명단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제직들이 각자 10명 이하의 이름을 적어내면 다득표 순으로 20명을 후보로 정하게 된다.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이날 선출되어 당회에 인준을 받은 20명의 명단은 득표 순으로 24일(주일) 본지에게 게재

될 예정이다.

31일(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발표된 2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명 이하의 투표를 실시하여 2/3 이상 득표자 중 득표 순으로 10명을 장로로 선출하게 된다. 공동의회에서의 투표도 1회만 실시된다.

장로 후보 자격에 대해 선거위원회에서는 총회헌법 6장 40조에 명기된 바에 따라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라야 하며 "본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상당기간 헌신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이종윤 목사, 서기 김영준 장로, 투표함 관리 임광식 장로, 검표위원 이용선 · 이남호 장로, 계수위원은 당회원으로 조직돼 있다.

이번에 선출될 장로는 약 6개월의 교육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치른 후

오는 11월 교회설립감사주일에 장립식을 하게 된다.

그간 장로 및 안수집사 · 권사 선거는 2년마다 실시해 왔으나 1999년부터 당회가 정하기 전에는 매년 5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다. "네 낳은 아비를 청중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보고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날이다.

오늘 교회와 각 부서에서는 아버지와 스승, 웃어른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각종 행사를 가진다. 청년부에서는 식당 봉사를 자원했으며 대학부에서는 소망부를 찾아 교회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예배 전 교회 앞에서는 학생들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어른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린다.

될 것을 기대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수요예배에 동참하여 어린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자 하는 소명감 있는 교사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수요예배를 담당한 이성득 목사에게 하면된다.

어린이 수요일예배 시작

어린이들을 위한 수요일예배가 신설된다.

이 예배는 13일(수)부터 시작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어린이 수요일예배에서는 유치 · 유년 · 초등부에 속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배, 성경공부, 찬양, 어린이 제자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주일 예배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린이에게 주간에 한번 더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한주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마련했다.

수요일예배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올해 초부터 시작한 어린이 주일 저녁예배, 지난 주부터 시작된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 수요성경공부 등과 더불어 어린이 영혼들에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전기가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찬양위원회에서는 가족찬양대회를 개최한다.

가족찬양대회는 22일(금) 오후 7시 - 9시까지 1층예배실에서 열리는데 가족 단위로 준비한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자유곡 1곡으로 출전하면 된다.

심사기준에는 음악성, 가족화합 정도, 자

세, 청중의 반응...등이 포함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중 믿음상을 수상한 가족은 찬양예배 시 성도들 앞에서 특창의 순서도 갖는다.

참가문의 및 신청은 찬양위원회 혹은 교구 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가족찬양대회 22일 개최

가정의 달 설교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 - 26절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신자라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또한 존경과 신뢰로 사랑의 짝을 되워야 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실용주의 사상으로 모든 가치가 도치된 오늘의 사회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하신 말씀은 진부하게 느껴지고 가벼이 여기기 쉬운 교훈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이 주일인 오늘 네 낳은 아버를 청중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봅시다.

1. “의인이 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라”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부모가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 가문을 빛내고 높은 벼슬에 앉는 것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

출세지상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해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바라는 자식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좇아, 진리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최초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세상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과 의 관계를 바로 갖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제 5계명을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여러가지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라고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은 분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서있게 모든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다. 효가 이루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을 기쁘게 할 일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봅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이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잠 23:22 - 26)

이종운 목사



요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하고 높일 자를 높이며 사회에 모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무릅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란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고 우선권을 잘 설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3. “마음을 드림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는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이해하려하고 사랑이 깊어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 인간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임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마음을 쏟아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도리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놀라운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자 컬럼

어머님 전상서

그날 이후 어머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떠나간 기차를 바라보고 서있는 여행처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이토록 원통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토록 곱고도 환하시던 어머님의 이마 위에 잔주름이 점점 늘어가더니 마침내 호미로 골을 파듯 어둠의 그림자로 덮인 것을 알았을 때는 어머님의 체온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애달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나는 어머님께 못다한 효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오늘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이렇게 엎디어 왔습니다.

어머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없이 말을 하고 계신 어머님의 무덤 위에 사랑을 듬뿍 담은 이 꽃 한다발을 바치고 싶습니다.

죄의 허물을 벗게 하는 따뜻한 햇볕으로...

한민수(대학부, 제 9교구)

우화 중에서 “누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를 두고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외투를 벗게 만든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볕이었지요.

부족한 저의 무겁고 두꺼운 죄의 허물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만 벗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날 지나치고 무례했던 저의 ‘도전’은 큰 잘못도 없었던 시대적·지역적 편견 등에 의해 버림받고 소외된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고뇌의 간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회개를 기다리는 침묵의 때, 공감대 속에서 따끔한 지적을 마다 않던 동생의 충고 등등이 제게는 강물같은 넉넉한 사랑의 ‘용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끓어오르는 이 한 젊은이 가슴 속의 덜 익은 열매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이 늙은이에게 따뜻한 사랑의 햇빛으로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는 아들, 아직은 주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저를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당신에게

신순우(집사, 제 5교구)

아버지 주일을 앞둔 새벽에 불현듯 잠이 깨어 당신 생각이 나서 이 편지를 써보니 받아 보기 바라오.

강산이 거의 세 번이나 바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나는 당신을 나의 배필로 점찍었고 1년 여의 교제 끝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지.

공직자의 아내로서 당신은 근검절약하며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 교육에만 전념해 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했으나 딸만 세 두고 보니 ‘아들이 하나 있어도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지.

당신이 너무나름다왔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결혼식 때 주례사처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불치의 병에 시달리게 되었소.

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치고 보니 처음엔 절망감에 사로잡혀 어쩔줄 몰랐으나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던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등한히 했던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소. 여러 사람에게 기도부탁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았지. 그저 다급한 마음

에 하나님의 마음을 섬세케 하는 일까지도 마다 않으며 마음 속으로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는 큰 죄를 짓고만 결과가 되었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모두 다 허사로 끝나고 말았소.

남자들은 제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못나게도 눈물만 많이 흘렸소. 장례식 날 하관할 때 엄마와 함께 묻히겠노라고 울부짖는 딸들을 보면서는 더 많이 울었소.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잘 섬겼던 당신을 너무 일찍 데려 가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교회출석도 중단했었으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가셨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소.

우리 큰 딸 선경이는 우리가 낳지 못했던 아들을 낳아 한 달 후면 돌이 되고, 둘째는 바라던 대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만족한 학창생활을 하고 있으며 막내도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잘하고 있소. 나도 몸 건강히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말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기 바라오.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던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한마디로 이 글을 마칠게요.

“여보!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랑했었소.”

5월의 향연

김두희(집사, 제 3교구)

눈 덮는 곳마다 초록은 초록으로 꽃과 들 풀이며, 명주빛 고운 햇살이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련한 향기조차 온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하고 많은 자리, 술한 욕도와 그 고운 자리를 다 두고서 하필이면 사태진 비탈에 피어난 저 오랑캐꽃은 어째서 거기서만 돌아나야 하는가. 그렇다. 어느 곳 어디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있으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잘 것 없는 꽃이건만 주어진 여건과 사랑이 비록 절박할지도 시절을 좇아 성실히 자기 사명을 완수하며 애써 준비하여 가꾸어 왔기에 저렇듯 떼떳하고 당당한 순종의 아름다운 제 모습을 자랑할 수 있으리라.

참으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숨씨. 과연 섬세하고 정조하며 오묘하고 보잘것 없는 미물에게까지 교훈이 듬뿍하여 만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도, 만가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다 가지고도 형언할 길 없다.

하나님께서선 어쩌면 모든 생명에게 시련을 주셨고 저마다의 시련을 극복할 생명력 또한 부여하셨는지 모른다. 자기 몫의 시련과 운명의 그 어떤 한계는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므로써 얻어지는 생명의 값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외로움과 배신의 잔을 마시기까지 홀로 험한 십자가 지시며 먼저 본이 되셨다.

푸르른 오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의 오월엔 나라가 겪는 위기로 가정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생존의 세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유익이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흠어져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 주시려는 큰 뜻을 가지

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달빛에 감사하는 이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스런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 주님 앞에서 질서와 사랑과 존경으로 자리잡힌 품위있는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만족할 때 나의 기쁨이요, 가족의 행복이며, 교회의 충만함과 사회의 화평일 것이다.

좌절과 절망과 비극 앞에 무릎 꿇는 나약한 주인공이 되지말자. 그리고 주님을 좇아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니, 일점 일획도 변치 않고 오직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믿고 인내하며 따르기만 하면 찬란한 오월의 향연처럼 어느 날 한량없는 당신의 그옥한 옷자락으로 단장된 쉼터에 우뚝 서게 되리라.

소망부는 매주일 2부 예배 후 3층에 모여 성경공부와 특별기도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하는 소망부에는 93세의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다.

얼마 전 소망부는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오래 준비하고 기다리던 날에 하필이면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다. 교사들은 계획을 연기해야 할지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간다고 해도 과연 참가자가 있을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출발시간이 되니 폭우에 강풍까지 동반되어 걱정은 더해 갔다. 교사들은 “하나님, 비를 계속 되더라도 오늘 이곳으로 달려오는 나이 많으신 우리 소망부 학생들을 돌보아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반수도 못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출발시간이 되니 버스 좌석이 꽉차고도 넘쳤다.

■ 우리는 지금 - 소망부 ■

아빠 · 엄마를 걱정하는 어린 아이처럼

소망부 교사

비를 맞으며 달려온 이들의 모습은 마냥 기쁨으로 충만했다. 염려 속에 어쩔 줄 모르던 교사들은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을 회개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소망부의 학생들은 교사들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것을. 우리들의 걱정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를 걱정하는 격이었다. 그렇다. 우리 소망부에서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고, 학생들 곧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교훈하시며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 교사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

고 있다.

소망부 학생이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시밭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까지 승리하신 믿음의 선배들이시다. 이들의 주름 속에는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을 위해 투쟁 하셨으며, 6·25 동란 속에서 공산주의와 싸운 흔적을 가졌으며, 수다한 국난을 눈물의 기도로 이기신 흔적이 배어 있다. 우리 교사들은 그분들을 보며 늘 가까이서 더 정성껏 돌보아드리고픈 마음 간절하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대학부** = 아버지 주일인 오늘 소망부를 방문한다. 오는 30일(주일)에는 ‘밥퍼주는 사랑’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를 모시고 특별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학부 회원 중 조남현 · 김병철 형제가 4월과 5월에 각각 군에 입대했다.

-이승현-

✿ 교구소식 ✿

- ◆ **박노기 집사 · 오현실 성도(5교구)**는 4일(월) 서울대 전철역 앞에 ‘팔레스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886 - 0466)
- ◆ **정인호 집사 · 김미영 집사**는 서초 2동 무지개아파트로 이사했다(☎ 3471 - 7487)

■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⑦ 5월 11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이 시대에 만나고 싶은 목회자 (정장복 교수)
- ⑧ 5월 18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건강과 절제생활 (김일순 교수)

스 대반회 가족들이 기도와 친교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1박 2

일 간의 수련회를 마련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광성훈련원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는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힘이 솟는 듯했다.

늘 듣고 읽던 말씀이었지만 특별한 시간, 색다른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조명해 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든 영혼에 잔잔히 내리는 빗줄기 같았으며 어두운 밤 빛나는 별빛과도 같이 우리 맘 속에 영롱하게 자리잡았다. “알고 행하면 복

이 있으리라”는 결론 속에 그간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기도 했다. 세상에 걸쳐 기록된 기도제목으로 피곤을 모르고 밤이 깊도록 합심하여 기도했다.

‘영성’에 관한 아침 특강을 통해 능력있는 영적 생활을 할 새 힘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 2시간 동안 진행된 찬양과 기도와 친교의 시간은 뜨거운 눈물과 벅찬 감동 속에 시간이 아쉽게만 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가득 안고 서로 나누는 형제의 사랑을 짧은 시간에 다 형언할 수 없어 안타깝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스대반회 수련회 보고서

기도 친교 찬양의 1박 2일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월) 오전 서울 강남노회 총대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민족이 세계선교” 주제강연을 한다. 12일엔 정기노회에 참여하며, 14일엔 기독교교도소설립을 위한 3당 정책위 · 법사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김광신 장로 · 이인선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I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5월에 있을 교회 행사들을 위해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